

# 근대적 공연예술로서의 야담(野談)과 야담대회\*

배선애\*\*

## 〈차례〉

1. 문제제기
2. 야담의 공연예술화 요인과 배경
3. 야담대회의 공연예술적 성격
  - 3.1. 공연기획과 구성
  - 3.2. 스타 야담사
  - 3.3. 공간과 관객
  - 3.4. 자본과 검열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2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야담대회’를 근대적 공연예술로 규정하고 당대의 자료를 통해 야담대회의 공연예술적 면모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근대 극장 공간 속에서 진행된 다양한 공연예술들의 생성과 길항, 교섭관계의 일단을 추적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쇄매체를 존재기반으로 삼았던 야담은 1920년대 후반 김진구가 이끈 ‘조선야담사’를 통해 민중교회운동의 일환인 ‘야담운동’으로 변모하는데, 그 방법은 전래로부터 내려온 ‘독물(讀物)’을 벗어나 근대 극장과 결합하면서 야담대회 즉, 공연예술의 형식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것은 ‘야담’ 자체를 강담이나 고담 등의 연행으로 파악했던 김진구의 태도에서 비롯된 바, 야담대회는 그 출발부터 공연예술적 지향을 갖춘 수밖에 없었다. 각 레퍼토리는 야담사의 의도에 따라 관객에게 교훈과 감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성을 취했으며,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공연예술과 함께 기획되기도 하였다. 야담사 1인에게 집중하는 공연형식의 특성에 따라 야담사는 점차로 강한 스타성을 띠게 되었고, 김진구의 뒤를 이은 윤백남은 스타 야담사의 대명사가 되었다. 야담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실내공간에서 진행되었고, 평균 20전 정도의 청담료를 지불한 관객들은 남녀노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울렀다. 야담대회가 거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A00419).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들되면서 공연예술적 특성이 강화되고 거기에 자본의 욕망이 결합되면서 야담대회는 점차로 교훈과 계몽에서 흥미와 오락으로 변화되어갔는데, 거기에는 야담대회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검열도 큰 이유가 되었다. 근대적 미디어 극장은 이렇게 전대로부터 이어져오던 서사물인 야담을 공연예술로 작동시켰으며, 이는 ‘담류’의 다양한 장르분화와 상호교섭관계를 만들어내는 토대로 기능했다.

주제어: 야담, 야담대회, 김진구, 윤백남, 신정연, 조선야담사, 근대적 미디어, 극장, 지역 언론, 근대적 공연예술, 담류(談類)

## 1. 문제제기

192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른바 ‘야담운동’ 혹은 ‘야담대회’의 행적을 좇아 공연예술로서 야담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매우 단순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근대적 미디어로 새롭게 등장한 극장은 식민지적 공공성은 물론 흥행공간의 상업성까지 담보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흥행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극장은 물론이고 공회당을 비롯한 각종의 청년회관, 학교의 대강당 등 공공 미디어로 만들어진 준(準)극장기관은 당시의 문화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sup>1)</sup>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위해 왜 돈을 내고 간

1) 식민지 시기 근대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그 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것.

이승희, 「공공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조선민간자본의 문화정치—함경도 지역 사례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이승희, 「조선극장의 스펠들과 극장의 정치경제학」, 『대동문화연구』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문화 사업, 극장업」,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이순진, 「1930년대 조선영화문화의 변동과 조선인 영화상설관의 소멸—단성사의 몰락과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위경혜,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배선에, 「1920년대 준극장기관과 주체 형성의 양상」,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배선에, 「대구경북지역의 문화 환경과 조선인 극장의 로컬리티」, 『대동문화연구』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황병주, 「식민지기 공적 공간의 등장과 공회당」,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것일까? 예컨대, 극장에 대한 연구가 공연행위와 식민지 문화 장(場)의 물질적 토대인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면 그 하드웨어 속에 운용되고 실행되었던 각종의 소프트웨어의 실체에 대한 호기심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 극장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공연예술은 물론 토론회, 시국 강연회, 웅변대회, 동화 및 동요대회 등 공연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 근대적 미디어라는 하드웨어에 각종의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그 유효함을 체험적으로 실험해나갔던 셈이다.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야담(野談)’이다. 연극이나 음악회, 무용회 등은 새롭게 등장한 서구적 개념의 근대 공연예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야담은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출판매체를 중심으로 유통되던 환경을 확장하여 극장이라는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공연예술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야담의 이러한 변화는 극장에 연동하는 공연예술의 장르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전 시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야담을 소구하는 당대 대중의 정서와 사회적 환경을 읽어내는 데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근대적 공연예술로서의 야담에 대한 연구는 근대적 공공미디어인 극장의 생산성과 식민지 시기 문화 장의 절합과 혼종의 동학(動學)을 재구하는 데에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야담과 야담대회에 대한 연구는 고전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야담의 시원으로 언급하는 『어우야담(於于野談)』이나 『청구야담(靑邱野談)』을 중심으로 한 야담 자체의 연구는 물론이고 근대의 환경 속에 변화해가는 야담을 추적하면서 연구의 대상을 ‘야담대회’로까지 확장하여 야담의 근대적 면모를 밝히는 연구도 상당한 편이다.<sup>2)</sup> 또한 근대 서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역사소설의 기원으로 야담을 고찰하거나 근대적 ‘취미 독물’로 야담을 살펴보기도

하여<sup>3)</sup> 야담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풍부하다.

근대적 공연예술로서 야담의 장르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도움을 받으면서도 특히 ‘공연예술’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1920년대 이후의 야담, 보다 구체적으로는 ‘야담대회’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공연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마치 이 시기 야담대회에 참석한 한 명의 관객으로 ‘야담대회’라는 공연을 감상하는 듯 공연상황의 자세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야담대회의 레퍼토리 분석이나 야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사물로서의 장르미학, 개별 야담사의 개성과 특징 등은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전대의 야담과 1920년대 야담대회가 달라지게 된 배경, 즉 인쇄매체를 전유하던 야담이 극장을 통한 공연예술이 될 수 있었던 원인부터 짚어보기로 한다.

## 2. 야담의 공연예술화 요인과 배경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계몽의 시대에 야담대회는 얼

2) 근대의 야담과 야담대회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것.

- 임형택, 「야담의 근대적 변모」, 『한국한문학회』 창립20주년기념 특집호, 한국한문학회, 1996;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제2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김준형, 「19세기 말~20세기 초 야담의 전개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이동월, 「야담사 김진구의 야담운동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이동월, 「근대 ‘야담가’의 존재와 구연 활동」, 『구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 신상필, 「일제시기 야담대회의 현장」, 『한문학보』 제16집, 우리한문학회, 2007;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제3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3)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제4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차혜영, 「1930년대 『월간야담』과 『야담』의 자리」,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02; 공임순, 「재미있고 유익하게, “건전한” 취미독물 야담의 프로파간다화」, 『민족문학사연구』 제34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공임순, 『식민지 시기 야담의 오락성과 프로파간다』, 엘피, 2013 등.

핏 과거로의 회귀로 비쳐진다. 당시 연극계에서도 ‘조선에는 연극이라는 것이 없다’고 단정할 만큼 과거의 것을 무시하던 풍토 속에서 옛날부터 전해내려 오던 야담을 대중 앞에 선보인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이다. 이로 인해 야담의 근대적 변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전대의 야담이 근대로 접어들어 대중화, 통속화의 길을 걸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야담대회의 ‘야담’이 과연 전대로부터 이어진 과거의 야담인가의 문제이다.

서책이라는 인쇄물로 계승되고 유통되던 야담은 개화기 딱지본 책자를 거쳐 1930년대에는 『야담』이나 『월간야담』의 잡지 형태로 그 명맥이 지속된다. 잡지 속에 발표된 다양한 야담들이 전대의 야담을 어떤 방식으로 계승하고 변형시켰는가는 야담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맥락이라면, 즉 인쇄매체를 통해 유통되던 야담이라는 전제만 놓고 본다면 야담대회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통속화의 도정이었음이 명확해진다. 그러나, 1927년 11월 23일 호기롭게 ‘조선야담사(朝鮮野談社)’를 조직하고 야담대회를 개최한 김진구의 논리를 살펴보면 그의 ‘야담’은 이미 전대의 야담과 구분되는 새로운 것으로, 인쇄매체에 안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사물이 아닌 공연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야담대회가 공연예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김진구가 의식한 야담의 정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1928년 2월 6일에 개최예정인 신춘야담대회를 앞두고 『동아일보』에 게재된 「민중의 오락으로 새로 나온 야담」<sup>4)</sup>과 「야담출현의 필연성-우리 조선의 객관적 정세로 보아서」<sup>5)</sup>를 살펴보면, ‘야담’은 “최근에 새로운 신술어(新術語)”로 정의한다. 물론 이 단어는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

4) 『동아일보』, 1928.1.31. 이 글에는 필자가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은데, 바로 다음 날부터 게재된 김진구의 「조선야담의 필연성」과 논리와 내용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김진구가 썼다고 추측된다.

5) 김진구의 이 글은 『동아일보』에 1928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다.

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새로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전 시대의 야담과 확연히 다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김진구가 인지하는 전대의 야담은 다음과 같다.

야담이라는 술어가 빛날 조선에도 업든 것은 아니다 청구야담(靑邱野談) 어우야담(於于野談)가튼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미 별로 근거도 업는 것을 엉터리로 적어노흔 서책(書冊)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략) 디방에 딸하 죄다 다르겿지마는 고담쟁이(古談師)라고 재담 잘하는 사람이 뒤에는 북장구를 둥당거리며 엽헤 술병노코 너른마당으로 하나 갖듯한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가진 재담을 석거 가면서 냇날 이야기를 하든 디방도 잇섯다. 불완전하고 넘우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혼이 미신(迷信)에 기우러진 진부(陳腐) 그것이엇지마는 엇쨌든지 잇기는 헛든 것은 사실이었다. (강조-인용자)<sup>6)</sup>

『청구야담』과 『어우야담』은 이미 널리 알려진 야담이기 때문에 서적으로 존재하는 야담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밑줄로 강조한 부분이다. 지역에서 행해지던 이른바 강담사의 연행 행위를 자세하게 적고 있는 이 대목은 김진구가 인지한 야담이 인쇄매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담사나 고담사가 대중을 앞에 놓고 연행하던 야담을 포괄하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신술어”인 야담이 “민중의 오락”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연행예술인 강담의 전통을 야담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이다.<sup>7)</sup>

야담의 연행성에 주목한 점은 그가 정의하는 야담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김진구가 정의하는 야담은 “中國의 設書와 日本의 講談

6) 「민중의 오락으로 새로 나온 야담」, 『동아일보』, 1928.1.31.

7) 「조선야담의 필연성」, 5회에서도 이러한 풍경이 묘사되는데, 그 뒤에 “다만 여기 문제 되는 것은 그 말이 진부하고 비과학적이며 사실을 넘우 무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기존 강담사의 연행에서 내용은 문체가 되지만 연행의 형식은 문체삼을 것이 없다는 맥락으로, 김진구가 야담의 연행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中 에도 新講談堺利彦 一派의 新運動을 끌어다가 그 長을 取하고 短을 補하여 그 上에 朝鮮의 精神을 집어넣어서 絶對로 朝鮮化시킨 그것을 創設해 노은 것<sup>8)</sup>이다. 정리하자면 야담의 내용은 조선적 정신이지만 그 외형은 일본의 ‘신강담’과 중국의 ‘설서’인데, 일본 유학의 경험<sup>9)</sup>이 있는 김진구로서는 일본의 신강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에 ‘운동’의 일환으로 야담의 ‘연행’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서책으로 내려오는 야담과 함께 연행되는 야담을 포괄하는 김진구의 야담운동은 자연스럽게 “입으로 붓으로=壇上으로 紙上으로=이 두 가지로써 運動의 方式”<sup>10)</sup>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김진구로 촉발된 ‘야담운동’은 붓을 통해 지면에 야담을 발표하는 것과 함께 대중을 앞에 놓고 입으로 강연하는 연행을 병행하게 된 것이며, 이는 야담대회가 공연예술로 장르미학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에 해당된다.

더구나 무대예술과 관련된 김진구의 행적은 야담이 연행성을 가지게 된 직접적 이유에 힘을 보탠다. 김진구는 ‘조선야담사’ 창립 이후인 1928년 7월 20일에 연극인 현철 등과 함께 ‘조선시대극연구회(朝鮮時代劇研究會)’를 조직한다. 제1회 공연으로 <반역자의 최후>, <대무대의 붕괴>를 기획하고 8월엔 지방 순회공연을 준비하였으나 대본이 통과되지 못해 공연이 금지되어 순회공연 역시 지연된다.<sup>11)</sup> 이 공연에서 대본을 쓴 작가가 바로 김진구이다. 각각 전봉준과 김옥균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 검열로 공연되지 못한 것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일본의 촉각이 예민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담운동을 하면서도 희곡을 쓰고 연극공연을 기획하는 김진구의 공연예술인

8) 김진구, 「야담출현 필연성」 4, 『동아일보』, 1928.2.5.

9) 김진구의 생애는 잘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이동월이 박사논문에서 비교적 상세한 사항들을 정리해놓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이동월, 「야담사 김진구의 야담운동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0) 김진구, 앞의 글.

11) 「시대극연구회의 상연 금지, 지방순회 연기」, 『중외일보』, 1928.8.5.

으로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진구의 뒤를 이어 1930년대 야담계를 평정하다시피한 윤백남 역시 이미 1910년대에 극단 문수성, 예성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연극 공연을 무대에 올린 경력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김진구와 윤백남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공연예술의 기획과 경험은 야담의 공연예술로서의 장르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진구의 야담운동은 곧 “歷史的 民衆 新敎化運動”<sup>12)</sup>으로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으며, 그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들이었다. 제1회 신춘야담대회의 광고 문구를 보자.

오라! 들으라! 우리조선에서 새로창설된 민중예술(民衆藝術)===그리고  
민중오락(民衆娛樂)인 신춘야담대회를 들으러 오라!

그리하여 우리는== 정신에극도로 굶주린 우리는 이것을들음으로써  
정신의양식(糧食)을 구하라! 어드라!

동양풍운(東洋風雲)을 휩쓸어닐으키든혁명아(革命兒)들의 포연탄우(砲  
煙彈雨)가운데서 장쾌한 활약을하든 리면사(裏面史)의 사실담을 들으라!  
뜻있고피끓는 만탄하의 청년들아! 반듯이 와서 들으라!<sup>13)</sup>

야담이 “새로 창설된 민중예술”, “민중오락”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면사의 사실담”을 통해 청년들이 “정신의 양식”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예술은 강한 현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다. 조선의 청년들에게 교화의 방법으로 공연예술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진구는 야담대회가 역사에 대한 교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야담대회의 내용은 청년들을 일깨울 수 있는 역사여야 하며,

12) 김진구, 앞의 글.

13) 『동아일보』, 1928.1.31.

특히 “특권계급의 손으로 된 모든 추태를 음폐(陰蔽)한 재래의 력사를 훌떡 뒤집어노흔 리면사(裏面史) 즉 야사(野史) 속에서 그 재료를 슈아넌”<sup>14)</sup> 것으로, “野史라는 것은 곧 民衆史라는 것을 意味하는”<sup>15)</sup>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식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로서의 야담대회는 점차 ‘오락’에 무게중심을 옮겨가게 된다. 192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야담사 일류의 골계(滑稽)와 풍자(諷刺)를 뒤석근 누구든지 듣고나면 실익(實益)이 만흔”<sup>16)</sup> 야담대회라며 교훈과 목적, 주제의식을 표현한 광고 문구들이 보이지만,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야담대회의 ‘실익’보다는 ‘웃음’을 강조<sup>17)</sup>하게 되는데, 이것은 야담대회가 극장공간을 활용한 공연예술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미디어로서의 극장이라는 무대, 그곳에서 연행하는 야담사, 그 야담사를 보기 위해 입장료를 지불하고 찾아오는 관객, 야담대회를 기획하는 주체들의 상업적 목적 등 1930년대의 야담대회는 이미 공연예술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야담이 공연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이다.

### 3. 야담대회의 공연예술적 성격

김진구는 야담대회가 성사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主催者의 事情과 警察과의 交渉 如何와

14) 『민중의 오락으로 새로 나온 야담』, 『동아일보』, 1928.1.31.

15) 김진구, 앞의 글.

16) 조선야담사의 1928년 하기야담대회(7월 6일) 안내기사. 『동아일보』, 1928.7.4.

17) “이마에 주름살이 한번씩 더해갈뿐인 도시사람들에게는 배속에서 끌어오르는 웃는 때가 잊어야한다. 현대인은 돈도있고 기개도있지마는 참된웃음이없다. 이런 요구를 좇아 동우회는 야담계의 양대 거장을 맞아 신년벽두의 선물로 신춘야담대회를 열게 되었다 한다.” 『동아일보』, 1934.1.13. 20일에 공회당에서 개최되는 야담 소개의 기사. 권덕규(<취영의 꿈>), 윤백남(<연산조>) 출연. 입장료는 20전 균일.

談士의 形便”<sup>18)</sup>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처음의 두 가지를 묶어 ‘자본과 검열의 역학’으로, 마지막 조건은 각각 ‘공연 기획과 구성’, ‘스타 야담사’ 그리고 ‘공간과 관객’으로 세분하여 야담의 공연예술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공연기획과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 3.1. 공연 기획과 구성

야담대회는 공연 기획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야담만으로 공연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야담과 함께 다른 공연이 구성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제1회 야담대회가 공연된 1927년 12월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야담만으로 구성되었는데, 세 명 혹은 두 명의 연사가 차례로 무대 위에 올라가 자신의 야담을 설파하는 형식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야담만 공연하는 경우에도 주최측 혹은 야담가들의 의도가 공연순서에 적극적으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야담대회는 대개 3개의 레퍼토리를 공연하는데, 제 1석<sup>19)</sup>에는 역사의 무게보다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배치되고, 두 번째는 비교적 가벼운 역사 이야기가 공연되며, 야담대회의 주제이자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은 마지막 제 3석에 위치한다. 따라서 초기의 야담대회에서 김진구는 대부분 마지막 제 3석을 차지하여 야담대회의 목적을 뚜렷이 하였다.<sup>20)</sup>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관객들의 호응이 뜨거워지게 되면 점

18) 김진구, 「야담남국행」 1, 『동아일보』, 1929.12.3.

19) 야담대회에서는 각 야담의 구분 단위로 ‘석(席)’을 사용하였다.

20)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 一석 근대 호협 박개천(近代豪俠朴价川)이라는 제목은 포복절도(抱腹絶倒) 사람의 배창자를 주릴 것이며 제 二석 만고정충리충무공(萬古精忠李忠武公)은 공의 우국우민(憂國憂民)하든 피의 일대기(一代記)를 중심으로 당시 조선의 정황(政况)을 여실이 그려내어 현대 청년의 가슴을 용소슴치울것이며 제삼석 제갈량과 리순신(諸葛亮과 李舜臣)은 동양이대경략가(東洋二大經略家)의 특수한 면목을 나타내어 가장 공경

점 역사 이야기로 빠져들어 ‘실익’을 얻게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 원리는 혼자서 진행하는 ‘독연(獨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1929년 11월 9일 논산에서 개최한 야담대회에 혼자 참석한 김진구는 자신의 레퍼토리 구성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談士의順序를定하는最初理想은 第一席은興味本位の것으로 終幕은趣味가잇으면서 實益이잇는것으로한다. 降壇할제음에 吐하는 最後의一聲은 그어떠한목적한것을 聽衆의耳膜에너어주려는것이 最後의目的이다. (강조 인용자)<sup>21)</sup>

이처럼 김진구가 기획하거나 연행하는 야담대회의 핵심은 마지막 레퍼토리에 있었던 것이다. 레퍼토리의 순서에 야담대회의 목적을 두었던 김진구와는 달리 윤백남은 레퍼토리외 공연 형식 자체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야담대회의 구성을 특화시켰다. 1931년 9월 12일 개성에서 개최된 윤백남 독연의 담제(談題)는 “史談 燕山朝 秘話 / 怪談 牧丹燈記 / 漫談 第二女子群像”<sup>22)</s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야담에 해당되는 것<sup>23)</sup>이지만 각각의 제목을 사담, 괴담, 만담으로 구분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배치하고, 흥미 본위의 이야기를 뒤에 위치시킴으로써 목적한 어떤 것을 관중에게 주기보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흥을 여운으로 남겨주는 구성을 취했던 것이다. 근대 대중문화 속에서 전천후 엔터테이

---

하게 또 신랄(辛辣)하게 비교하는 취미의 것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1.6.25. 6월 27일에 개최되는 칙서(滌署)야담대회 안내 기사.

- 21) 김진구, 『야담남국행』 4, 『동아일보』, 1929.12.7. 이 야담대회에서 김진구는 경찰로부터 공연의 순서를 바꾸라는 명령을 받는다. 본인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게 된 김진구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경찰의 요구대로 순서를 바꾸어 공연한다.
- 22) 『동아일보』, 1931.9.16.
- 23) ‘만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신불출로 특화된 공연예술로서의 만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예술로서의 만담이 본격적 공연예술로 부상한 것은 1930년대 중반으로, 공연 시간도 매우 짧았다. 따라서 그 이전 시기에 사용된 만담이라는 단어는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 정도의 의미였다.

너로 활동한 윤백남다운 구성인 셈이다.

야담가들이 구연하는 야담은 대개 하나의 이야기가 한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야담대회는 보통 저녁 7시~8시 사이에 시작<sup>24)</sup>하는데, 세 편 혹은 두 편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공연한 후 폐회하는 시간은 10시에서 11시였다.

연사가 등단하야 노재상의 괴적과 봉변(老宰相의奇蹟逢變)이란 제목의 야담이 시작되자 박수와 우습은 별러졌으며 이 제목의 야담은 약 한 시간에 끝났고 잠시 휴게한 후 리조 숙종대왕 때 ‘리삼의 철퇴’(李朝肅宗大王時李森의鐵槌)란 제목의 야담이 약 한 시간 계속되어 전후 두 시간동안의 야담은 만당청중의 박수환호우습으로 끝을 맞치니 때는 오후 십시경이었다.<sup>25)</sup>

확인한 자료 중에서 가장 긴 공연시간은 4시간으로, 1928년 3월 17일에 개최된 1차 개성 신춘야담대회가 그것인데, 8시 시작하여 12시에 폐회하였다. 앞서 공연 순서를 바꾸라는 경찰의 요구가 있었던 논산의 야담대회는 김진구 혼자 두 편의 레퍼토리를 공연하는데 세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sup>26)</sup>

야담대회만으로도 충분히 청중을 끌어모을 수 있었지만, 야담 개최의 목적에 따라 혹은 주최층의 특성에 따라 공연의 이름은 야담대회였지만 야담과 함께 다른 공연이 진행되는 일이 흔했다. 제1회 야담대회 이후 조선야담사의 공식적 활동은 “결혼문제토론회”였는데, 토론회의 ‘여흥’에 김학보(김진구)의 야담 <남북전쟁(南北戰爭)>이 기획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sup>27)</sup> 야담과 다른 공연의 병행에 대한 예들을 몇 가지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24) 회관낙성기념사업의 제일착으로 진행된 개성 제2차 야담대회는 1928년 5월 25일 밤 9시부터 시작하였다. 1929년 7월 3일의 신의주야담회도 9시에 시작하였는데, 야담대회 중에서 9시는 가장 늦은 시간이다. 『동아일보』, 1929.7.7.

25) 1935년 2월 24일 개성고려청년회주최로 고려 청년회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춘야담대회. 신정언이 개성에서 처음 야담을 공연. 『조선일보』, 1935.2.28.

26) 『동아일보』, 1929.11.15. 논산 야담대회. 김갑순씨택에서 9일 개최, 300명의 관중.

27) 『동아일보』, 1928.1.24.

“定刻前부터 雲集하는 聽衆은 無慮 五六百名에 達하여 大盛況裡에 開會하고 獨唱과 바이올링 등의 음악이 잇는 後”<sup>28)</sup>

“留學生의 獨唱合唱”<sup>29)</sup>

“餘興 少女合唱及舞踊”<sup>30)</sup>

“특별히 유광렬씨의 재미있는 야담과 태서명곡의 레코드 콘서트가 잇을 터임으로”<sup>31)</sup>

“일, 蓋蘇文(高句麗)…權憲奎 이, 獨唱 姜石燕 삼, 孝宗大王과 許積…朴寅成”<sup>32)</sup>

“휴게시간을 리용하여 약간의음악이잇는후다시천하일색주가(天下一色酒店)라는제목으로장시간의 야담이잇서서 도취된군중석에서는 우습과박수갈채가런발하였다 끄트로 여흥에 드러당시 계룡관명기들의 아릿따운 노래가 잇는후”<sup>33)</sup>

“더욱이 간간히본사특제의 활동사진을영사하여 청중의 갈채를 바딤스며또한 윤경철(尹敬喆)군의 독창이잇서 청중을 열광케하였다”<sup>34)</sup>

“영화에드러가서는 일즉이본사에서 촬영한 두가지사진이외에 짜뿌링의모험으로 일반의 대인기를 집중하였다”<sup>35)</sup>

“순서에따러 알파하-모니가밴드의 합주가사오중잇섯는데 곡목을맞굴

- 28) 조선야담사순화대의 해주 야담회. 8월 13일 8시부터 해주남본정 예배당 내에서 개최. 『동아일보』, 1928.8.17.
- 29) 『동아일보』, 1928.8.30. 『동아일보』강릉지국 후원 강릉야담대회. 8월 24일 임정구락부에서 개최. 3백여 명의 청중.
- 30) 『동아일보』, 1931.12.1. 야담사 창립 4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야담대회의 레파토리 구성에는 김학보, 이경찬, 김진구의 야담이 진행된 후 마지막 여흥에 소녀합창이 기획되어 있다.
- 31) 『동아일보』, 1933.4.7. 태화여학교 내 조선직업부인협회 주최. 유광렬은 이후에도 여자 기독교청년회가 주최하는 야담회에 연사로 초청되기도 한다. 『동아일보』, 1933.9.22.
- 32) 라디오세계사 주최의 신춘야담회.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1934년 2월 9일 개최. 『조선일보』, 1934.2.9.
- 33) 1935년 2월 21일 대전 경심관에서 『조선일보』 대전지국과 금강주배급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야담대회. 『조선일보』, 1935.2.24.
- 34) 1935년 3월 30일 신의주 신극장에서 진행된 『조선일보』 신의주지국 주최의 독자위안 야담대회. 『조선일보』, 1935.4.10.
- 35) 『조선일보』, 1935.10.22.

때마다 익숙한 가수들의 하·모니가구멍을통하야고요한밤중음파를 여지업  
시진동식히는 신비적음률로 청중은무아몽중으로 도취되었섯다”<sup>36)</sup>

여러 개의 개별 공연예술 장르가 ‘대회’라는 명목 하에 함께 공연되는 것은 이 시기에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연설회와 강연회, 심지어 찬반 토론회에서도 독창이나 합창이 중간에 공연되었으며, 어린이들의 동요대회는 대개 동화대회와 함께 이루어졌다. 야담대회도 이러한 공연 방식을 따르고 있었고, 더구나 야담은 야담사 개인의 사정만 조절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공연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연예술과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야담대회와 가장 빈번하게 결합한 것은 독창과 합창 등의 음악회였고, 무용 공연도 자주 병행했으며, 극장이라는 공간의 특징이 전제되어 영화 상영도 자주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영화의 경우는 야담대회 당일 행사 속에 포함되어 상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934년 3월 5일 『동아일보』 경서지국 주최의 독자위안 야담대회에서는 5일 윤백남의 야담을 전후한 4일과 6일에 <전쟁아 잘잊거라>라는 영화를 상영하여 야담대회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을 오래 지속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sup>37)</sup>

야담대회가 다른 예술장르와 함께 공연되는 기획은 상업적 의도가 큰 부분이다. ‘야담운동’을 선언한 조선야담사가 주최하는 야담대회에서는 이러한 결합공연 형태가 창립 4주년 기념대회의 ‘여흥’에서만 발견될 뿐 대체로 야담만을 공연하였다. 주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의 언론매체가 주최하는 야담대회는 영화를 비롯한 각종의 장르가 결합된 방식을 취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흥밋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객 나이가 많은

36) 『조선일보』, 1936.5.28.

37) 『동아일보』, 1934.3.7. 윤백남의 연제(演題)는 <인조반정과 강항(姜沆)>, <몽금>이었지만 야담대회 결과를 알리는 기사에서는 “윤백남씨의 재미있는 야담과 만담”이라고 적고 있다.

독자들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극장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입장료를 지불한 한정된 관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야담대회의 속성상 초기의 계몽적 목적과는 달리 퍼포먼스로서의 흥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4)항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3.2. 스타 야담사

<사진 1>은 1928년 2월 6일 경 운동 천도교기념관에 진행된 제1회 신춘야담대회의 공연사진이다. 동그라미 안은 김진구이며, 그 밑에는 객석의 풍경이다. 일반적으로 야담대회는 객석보다 높은 무대 위에 낮은 책상을 놓고 야담사가 서거나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곧 야담대회에서의 최대 볼거리이자 최고의 관심대상은 바로 야담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객은 아무 것도 없는 무대 위에서 혼자 두서너 시



<사진 1> 1928년 1회 신춘야담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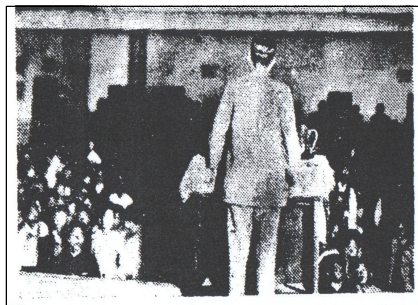
간을 공연하는 야담사에 전적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으며, 야담사의 일거수 일투족에 민감한 호응을 하면서 공연 상황을 함께 진행시켜나가게 된다.

연행하는 한 명에게 수많은 관중이 집중하는 것은 전통 연희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판소리의 광대가 그렇고, 강담사나 고담사, 전기수의 연행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렇듯 익숙해 보이는 야담대회의 연행방식은 그 근본부터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우선, 관객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청담료(廳談料)를 지불한다. 어떤 공연 혹은 대회를 선택할 것

인가는 온전히 관객 각자의 목적과 취향에 따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모든 관객들이 전면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극장공간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예전처럼 연행 공간을 가운데 놓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한눈 팔 거리가 많았던 공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된 것이다.

근대 극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 관객들의 이러한 근대적 관극 태도의 목적은 무대 위에 펼쳐지는 내용에 집중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는 것이었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극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관객은 무대에 집중할 의지를 갖고 있지만, 무대 위의 연행이 얼마나 관객의 관심과 호기심,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려는가는 관객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신기한 무대 장치나 화려한 의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오로지 야담사 한 명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야담대회는 관객의 집중도를 증폭시키는 것이 다른 공연예술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터이다. 각종 야담대회에 음악회와 무용회, 영화 상영까지 결합한 것도 그 상업적 목적을 차치하더라도 야담사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관객의 피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장치로 기능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야담대회에서 관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야담사였다. <사진 2>에서 보듯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야담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관객들의 집중을 유도하게 되는데, 김진구처럼 레퍼토리의 순서를 의식적으로 배치하여 관객의 정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조절하기도 하고, 윤백남처럼 레퍼토리 자체를 흥미와 재미 위주로 선정하여 야담사 외에 다른 볼거리가 없어도



<사진 2> 1936년 5월 26일 영등포 연예관  
신정연 야담

관객이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레퍼토리의 운용보다 실상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소구한 것은 야담사의 연행 방식이었다. 과거의 이야기를 그저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얼마나 실감나게,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해내는가가 한 시간 동안 관객을 집중하게 만든 중요한 장치였던 것이다.<sup>38)</sup> 다음은 신문 기사에 게재된 야담가들의 연행 방식에 대한 표현들이다.

“快活코또는 悲壯한 論調로 모든 悲劇의 事實譚을 如實하고 深刻하게 長時間說破하야 滿場聽衆에게 만흔 感興을 주”<sup>39)</sup>

“재미있고 조리있는 열변”<sup>40)</sup>

“윤백남씨가 우리같은 박수소리를 따라 등단하야 二시간반동안의 장시간을 만담과 소화(笑話)를 섞어가면서 도도 수천의 웅변을 토하야 만장정중으로 하여금 포복절도케 하는 동시에 감명을 깊게 하고”<sup>41)</sup>

“예기 이상의 말과 표정에 만장관중은 미친 듯이 날뛰어”<sup>42)</sup>

“신정언선생의 야담은 문자 그대로 대중의손에 땀을 쥐도록 크라이막스를 연출하얏고”<sup>43)</sup>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쾌활코 또는 비장한 논조”나 “재미있고 조리 있는 열변”과 같은 화술에 대해서이다. 김옥균이든 연산이든<sup>44)</sup> 그것을 관

38) 이동월은 「근대 ‘야담가’의 존재와 구연 활동」(『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에서 각각 김진구와 윤백남, 신정언의 구연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김진구는 본담에 들어가기 전 5~10분 정도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담뇌(談腦)’를 적극 활용한 노련한 구연자로, 윤백남은 “실감있는 어조”에 적절한 몸동작의 활용이 특징이었으며, 신정언은 “듣기 좋은 음성에 말까지 쉬”워서 관객의 몰입과 감정이입을 극대화한 ‘화중화(話中化)’ 화술의 소유자로 그 특징을 적고 있다.

39) 『동아일보』, 1928.5.29.

40) 『동아일보』, 1933.11.12.

41) 『동아일보』, 1933.11.19. 11월 15일 진남포공회당에서 진행된 윤백남 야담대회.

42) 『동아일보』, 1933.11.22. 11월 18일 정주 정상극장에서 열린 윤백남 야담대회.

43) 『조선일보』, 1935.10.22.

44) 김진구는 주로 김옥균에 관한 레퍼토리를, 윤백남은 비교적 다양한 시대를 아울렀으

객에게 이야기하는 야담사는 가급적이면 생생하고 구체적인 장면을 만들어 내는 화술에 집중하였고, 그 화술을 통해 야담의 사건전개를 클라이막스로까지 치닫게 했다. 특히 연극 무대의 경험이 풍부한 윤백남은 화술 외에 말과 표징에도 다양한 변화를 주어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미 이 시기 야담은 라디오방송의 중요 방송콘텐츠였는데,<sup>45)</sup> 목소리만 들리는 방송야담에 비해 야담사의 연행을 눈 앞에서 직접 체험하는 극장에서의 야담대회는 유려하고 디테일한 화술과 다양한 표정 및 몸짓을 통해 공연예술의 생생함을 관객들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이처럼 야담대회에서 야담사의 연행 자체가 흥행의 열쇠였기 때문에 야담사는 당연하게도 관객의 관심이 집중된 스타 야담사가 되어갔고, 주최측에서도 가급적이면 스타 야담사를 초빙하려고 애를 썼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김진구의 경우는 그를 수식하는 표현도 많지 않고, 야담대회의 홍보역시 “조선야담사 김진구”처럼 스타 야담사로 특화되지는 않았다. 이에 비



<사진 3> 1934년 야담대회 광고

나 그래도 즐겨 공연하던 레퍼토리는 연산군과 그 시대에 대한 것이었다.

45) 윤백남이나 신정연은 이미 방송야담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외 야담사들도 방송활동을 하였으나 극장에서의 야담대회를 단독의 이름으로 개최하는 야담사는 윤백남이나 신정연 정도로 한정되었다. 무대와 극장, 그리고 관객을 마주하는 경험이 야담대회 야담사에게 매우 필요한 덕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송야담을 하던 야담가가 실제 야담대회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데, 1933년 12월 17일 보은 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된 독자위안 야담대회의 연사는 김석구였다. 기사에서는 “연사는 김석구(金錫九)씨인데 씨가 고향에 온 기회를 타서 본보 독자를 위하여 야담을 하기로 된 것이다. 그런데 씨는 이조역사에 정통할뿐만 아니라 경성 방송국에서 여러번 야담방송도 한만큼 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적으면서 왜 김석구가 이 야담대회의 연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스타 야담사가 아닌 경우 그 야담사의 이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1933.12.12.

해 야담대회가 운동의 측면보다 흥행의 측면으로 강화되는 1930년대에 적극 활동한 윤백남과 신정언은 스타였다. 1934년 1월 20일에 개최된 신춘야담대회 광고(<사진 3>)를 보면 윤백남과 권덕규의 사진이 함께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담대회 광고로서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스타 야담사를 강조함으로써 흥행에 성공하려는 의도가 묻어있는 동시에 야담사가 이미 스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광고이기도 하다.

<사진 4>는 “야담계 대왕”<sup>46)</sup>인 윤백남의 야담대회 연단 사진인데, 윤백남을 가운데 두고 커다란 화환이 좌우에 놓여 있다. 보통 야담대회의 무대는 앞의 <사진 2>처럼 야담사를 위한 책상 혹은 탁자만 놓여있다. 대회 특성에 따라서는 무대 뒷면에 주최가 누구인가를 알려



<사진 4> 1936년 5월 윤백남 연단사진

주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고, 신문사 지국장이나 주최측의 대표, 혹은 각 지방의 유지들이 무대 오른편이나 왼편에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아있기도 한다. 이런 일반적 야담대회의 무대에 비하면 <사진 4>의 연단은 매우 화려한 셈이다. 『동아일보』가 주최했기 때문에 뒷면에 신문사 로고가 걸려있는 것까지는 일반적이지만, 야담사의 양쪽에 화환을 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다.<sup>47)</sup> 텅 빈 무대에서 야담사만 바라보던 관객 입장에서선 색다른 눈요기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타 야담사인 윤백남의 스타성을 보여준, 윤백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무대였던 것이다.

46) 『동아일보』, 1934.10.4. 윤백남에게 가장 흔하게 사용된 수식어는 “야담계 거성”으로, 그 외에도 화려하고 요란한 스타급 수식어들이 따라다녔다.

47) 1932년 10월 1일과 2일에 걸쳐 진행된 평양의 야담대회에서도 무대 위에 화환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윤백남의 왼편에 하나만 놓여 있었다.

### 3.3. 공간과 관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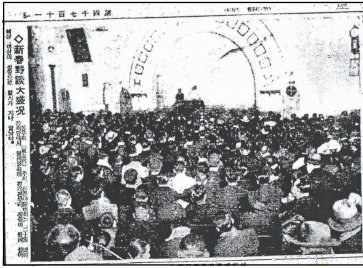
공연예술로서의 야담대회는 비교적 필요한 구성요소가 단순한 편이다. 무대 장치나 음향 등 공연예술의 다양한 요소들이 전혀 필요 없었고, 오직 야담을 구연하는 연사만 있으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담대회가 개최된 공간은 <사진 5>의 논산극장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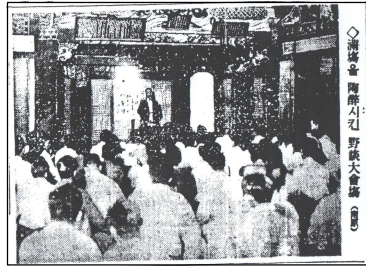
<사진 5> 1933년 9월 19일. 논산극장 윤백남 야담대회

상업적 극장공간을 비롯하여 <사진 6>의 공회당, 청년회관 대강당, 교회 예배당, 유치원, 학교 대강당, <사진 7>의 상무회관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면 어디든 공연이 가능했다.<sup>48)</sup> 무수한 야담대회가 단 한 번도 실외에서 개최되지 않았던 것은 야담사 한 사람이 수백에서 수천 명의 관객을 상대하여 독연을 하기 때문에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어야 입장료를 효과적으로 걷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48) 1933년 11월에 진행된 윤백남의 순회 야담대회가 개최된 장소는 정상극장(정주), 보교 강당(문산), 앵좌(청주), 공회당(진남포), 운향유치원(운향), 영흥유치원(철산), 천도교당(안주), 기독교청년회관(남시), 겸이포좌(겸이포) 등으로 상업적 극장기관은 물론 준극장기관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사진 6> 1934년 1월 20일. 장곡천정 공회당. 신춘야담대회



<사진 7> 1937년 7월 12일. 남경 상무회관. 윤백남 야담대회

야담대회는 흥행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연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김진구가 야담운동의 일환으로 공연을 할 초기의 야담대회는 강한 민중교화적 성격으로 인해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 문제에 시비가 붙기도 했다. 1929년 11월 9일에 개최한 논산 야담대회에서 공연 장소로 준비된 곳은 ‘논산좌’인데, 이곳은 극장이 아니라 충남감부 김갑순 개인의 창고겸용 공간이었다. 경찰의 의용소방대 행사에도 장소를 내어주지 않던 김씨가 야담대회의 장소로 흔쾌히 수락을 하자 경찰이 “郡守官舎가 갖잡다는 등 許可업는 劇場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에 타협을 본 것이 논산좌라는 이름 대신 “金甲淳倉庫”로 광고를 하라는 조건이었다.<sup>49)</sup>

전문 극장이든 공회당이든 심지어 개인의 창고겸용 공간이든 상관없이 각 야담대회에 운집한 관객은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1천 명을 넘었다.<sup>50)</sup> 관객은 남녀노소 불문이었으나, 지역에 따라서 관객의 성별이나 연령층이 나누어지기도 했다. 논산의 경우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관객들

49) 김진구, 『야담남국행』 2, 『동아일보』, 1929.12.4.

50) 1931년 8월 22일에 개최된 윤백남 야담대회는 수원공보교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모여든 청중은 1천 3백~4백명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1.8.25. 학교의 대강당은 비교적 큰 규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된 야담대회는 기본적으로 1천 명 내외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중에 학생과 부인이 적어서 비록 야담대회는 대성황을 이루었음에도 연사였던 김진구는 “寂寞을 느꼈다. 섭섭하였다”<sup>51)</sup>고 하였다. 윤백남의 경우 전주 야담대회에서는 “有識階級の聽衆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宣傳이 부족한탓으로 一般大衆의聽衆은 매우적었던 것”<sup>52)</sup>이 유감이기도 했고, 또 동래의 일신여학교에서는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야담대회를 열기도 하였다.<sup>53)</sup>

<사진 8>은 1933년 선천에서 개최된 윤백남 야담대회의 객석 사진인데, 왼편에 앉아서 웃고 있는 다수의 관객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소녀들로, 같은 모양의 한복저고리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학교 학생들이다. 객석의 상당부분을 이 여학생들이 차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야담대회에 단체 관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기에 불편할 만큼 빽빽하게 앉았음에도 자리가 부족하여 뒤에 서 있는 관객들을 보면 야담대회의 성황을 알리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었다.



<사진 8> 1933년 11월 20일.  
宣川 윤백남 야담대회

이렇듯 다양한 야담대회의 관객들은 야담사의 구연에 매우 적극적인 호응을 하였는데,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當時事實의 裏面史를 痛快히 說破하매 滿場한 聽衆은 最後까지 非常

51) 김진구, 「야담남국행」 5, 『동아일보』, 1929.12.8.  
52) 윤백남, 「남조선야담순방」 7, 『동아일보』, 1931.5.24.  
53) 윤백남, 「남조선야담순방」 11, 『동아일보』, 1931.5.30.

한 興味로써 傍聽하야 拍手喝采의 歎呼聲<sup>54)</sup>

“『흡!흡!』 『홀쩍홀쩍』하는소리까지 들린다<sup>55)</sup>”

“三시간에 맞는 력사적 기담은 무슨 연극이나 활동사진보다도 실로 상상 이상의 대환영<sup>56)</sup>”

“일반 청중은 흥미진진하야 밤가는줄을 모르고 때때로 강당이 문어질듯이 청중은 웃어대며 야담대회의 하로밤을 원만히 폐회<sup>57)</sup>”

“신의주에서 일즉 보지 못하든 신정연 야담대회로 언언구구마다 청중의 심간을 자극하야 청중을 도취시켰다<sup>58)</sup>”

“청중은 미칠듯긴장하야 문지떠러지는소리까지 들을수업시 조용하였다가도 청천에 벽역가티 갑자기 연예관이떠나가는것처럼 박수갈채로 아우성소리가 일어나서 울든아기네도 우슴을것도록 장래는극도로 도취되어 다만하로저녁의 짜른시간이나마 만든소득을엇고<sup>59)</sup>”

관객들은 먼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없을 만큼 최대한 야담사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 구연되는 내용에 따라 극장이 무너질 듯 박장 대소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안타까운 죽음에 순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한다. 몇 시간에 걸쳐 좁은 공간에 앉아있는 것만도 몹시 불편했을 법한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객들이 야담대회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던 것일까? 개성에서 두 번째 야담대회를 마친 김진구가 “演士室을 突擊하야 金の寫眞을보여<sup>60)</sup>”달라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언급한 부분을 보면, 적어도 초기 야담대회에서의 관객은 야담사가 의도한 바, “정신의 양식”, “실익”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54) 1928년 3월 17일 개성에서 개최된 신춘야담대회. 김진구, 김익환, 민효식 3명의 야담이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동아일보』, 1928.3.21.

55) 김진구, 「개성야담행」 9, 『중외일보』, 1928.6.11.

56) 『동아일보』, 1932.1.27.

57) 『동아일보』, 1933.11.30. 11월 26일 안주 천도교당에서 진행된 윤백남 야담대회.

58) 『조선일보』, 1935.4.10.

59) 『조선일보』, 1936.5.28.

60) 김진구, 「개성야담행」 11, 『중외일보』, 1928.6.16.

### 3.4. 자본과 검열

근대 공연예술로서 야담대회가 자본과 연관된 부분은 입장료(청담료)와 후원의 두 부분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개최된 모든 야담대회는 관객들에게 일정한 청담료를 받았다. 김진구에 의해 주도된 제1회 야담대회 입장료가 20전이었고, 그 후 조선야담사의 공식적 활동인 토론대회 역시도 20전의 입장료를 받았다.<sup>61)</sup> 조선에 처음 열리는 야담대회의 입장료를 20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된 야담대회의 평균 입장료도 20전인 셈이었다. 대체로 입장료는 균일이었지만 차등을 두기도 했다. 1928년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평양에서 개최된 야담대회에서는 “普通 三十錢 學生 二十錢”<sup>62)</sup>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1932년 1월 21일에 철원극장에서 개최된 윤백남 야담대회는 대인이 10전, 소이는 5전으로 나누었다.<sup>63)</sup>

야담대회 입장료 중 가장 저렴한 것은 10전으로, 이 입장료의 명분은 “場內를 整理키 爲”<sup>64)</sup>한 것이었다. 10전 이상을 받는 야담대회는 입장료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반면 유독 10전의 야담대회만 “장내를 정리”한다는 명분을 붙인 것은 야담대회가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관람해야 하는 공연예술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다.

입장료는 실제로 야담대회의 개최자와 후원자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된다. 야담대회 자체를 민족교화의 운동으로 삼은 김진구와 조선야담사가 주최하는 야담대회는 대체로 20전 내외의 입장료를 고수하였다. 20전이었던 제1회 야담대회는 물론, 1931년 3월의 신춘야담대회는 야담사 주최로 15전 균일가로 받았고,<sup>65)</sup> 역시 야담사가 주최하는 척서야담대회도

61) 참고로, 윤백남이 1934년에 발행한 『월간야담』의 가격 역시 20전이였다.

62) 『동아일보』, 1928.9.9.

63) 『동아일보』, 1932.1.18. 이 야담대회에는 청중이 7~8백명 모였다고 한다.

64) 『동아일보』, 1928.8.11. 8월 11일 진행된 조선야담사순회대 원산 야담대회. /1932년 5월 22일 군산에서 일반유지 후원으로 개최된 김진구의 야담대회. 『동아일보』, 1932.5.21.

청담료는 15전 균일가였다. 1931년 12월에 개최한 야담사 창립 4주년 기념 야담대회 역시 15전 균일이다.<sup>66)</sup> 조선야담사의 야담사들에게는 그들이 개최하는 야담대회가 상업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기에 높은 입장료를 책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지역 유지의 후원을 받는 야담대회의 입장료가 비교적 20전 미만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역민에 대한 대민봉사의 차원에서 개최된 야담대회 역시 상업성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낮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야담대회에서 자본의 힘이 본격적으로 작동된 것은 언론사의 후원이 가시화되면서부터이다. 각 언론사의 지국이 야담대회를 후원하면서 입장료가 비싸졌는데, 입장료를 올려버린 궁극적인 이유는 입장료를 부풀린 후 독자할인이라는 조건을 통해 저렴한 입장료로 독자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일보』 학예부가 후원한 제1회 신춘야담대회는 30전(독자는 반액인 15전),<sup>67)</sup> 1928년 7월 개최된 하계 야담대회의 입장료는 30전 균일(『동아일보』 독자는 20전)<sup>68)</sup>이었으며, 1932년 목포야담대회는 야담대회 입장료 중 가장 비싼 80전과 50전(『동아일보』 독자는 50전과 30전)<sup>69)</sup>을 받았다. 이것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1938년에 개최된 평양야담만담대회는 50전 균일이었으나 『조선일보』 독자는 30전으로 할인받을 수 있었다.<sup>70)</sup> 안내된 입장료에 비해 각 신문의

65) 『동아일보』 1931.3.6. 실제로 이 야담대회는 3월 8일 일요일 7시 반으로 옮겨져 공연되었다.

66) 『동아일보』, 1931.12.1. 이 대회는 10일 오후 7시 천도교기념관에서 진행하였다.

67) 『동아일보』, 192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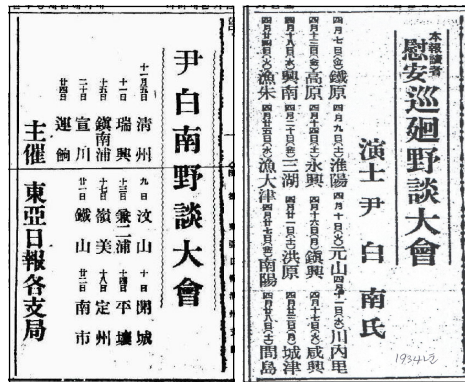
68) 『동아일보』, 1928.7.6.

69) 목포기자단에서 주최한 목포야담대회는 5월 17일에 목포극장에서 김진구의 야담을 공연하였는데, 청담료를 80전과 50전으로 책정하였고(그 구분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독자에게는 각각 50전과 30전으로 할인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1932.5.14.

70) 1938년 2월 8일, 9일에 걸친 평양축구단의 원정 경비조달 야담, 만담대회. 평양 부민관에서 신정언(<채상공의 십년검상>)과 유추강(<선락여의>)은 야담을, 신불출(<유쾌한 탄식>), 황재경(황재경. <신춘학자대회>)은 만담을 공연. 『조선일보』, 1938.2.8.

독자들은 최대 반값에서 최소 10전 이상을 할인받게 된 것이다. 야담대회를 통한 언론사의 독자확보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는데, 1934년에 창간된 『라디오세계』는 『조선일보』에서 후원하는 야담대회(20전 균일이나 독자에게는 10전)에 참석한 관객들에게 창간호를 무료로 발송하는 행사까지 진행하였다.<sup>71)</sup> 결국 야담대회 입장료는 독자 입장에서는 할인을 받아 저렴한 관람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야담대회 개최자들에게는 야담대회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는 복수의 목적이 결합한 결과이다.

야담대회와 언론사의 직접적 관계는 순회공연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지방의 언론사는 “지역의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고 공유하며,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려는”<sup>72)</sup> 목적 때문에 지역의 또다른 미디어인 극장기관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그 속에서 공연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1933년 11월 윤백남야담대회 순회 일정> <1934년 4월 윤백남야담대회 순회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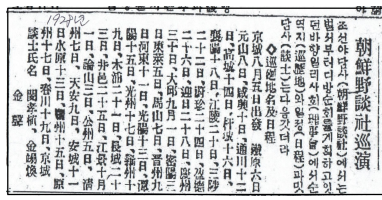
대한 지원과 후원을 일상적으로 진행한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일간지는 각 지역별로 지국을 두었기 때문에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와 지국 독자의 확보는 거대 조직망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는 사업이었

71) “입장료는 [이집전] 균일로되어었는데 본보독자만을위하여 십전의 반액권을 발행하게되었으며 라디오세계사에서서는 이번창간호를 입장제씨에게 발송하게되어야이중봉사다”. 『조선일보』, 1934.2.9.  
 72) 배선애, 『대구경북지역의 문화 환경과 조선인 극장의 로컬리티』, 『대동문화연구』 제 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32면.

다. 야담사를 중심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준비가 간단하고 기동성이 큰 야담대회의 공연예술적 특성은 언론사의 순회공연을 기획하게 하였고, 대체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중요 일간지의 지국을 통해 각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순회하기에 이른다.<sup>73)</sup> 특히 “야담계 거성”으로 칭송받던 윤백남의 경우, 『동아일보』의 적극적 후원을 받아 1933년과 1934년 매해 순회야담대회를 개최하는데, 아래 순회 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순회 기간은 한 달 단위이며, 지역은 강원 이북지역이나 함경 지역, 좀더 멀리는 간도까지 포함한 북쪽지방 등으로 한정하여 작은 소도시까지 찾아가서 공연하였다.

야담대회와 자본의 관계가 입장료와 순회공연으로 나타났다면, 야담대회와 관련된 각종 검열과 단속의 현장은 식민지 제도와 만나는 부분이다. 다수의 관객을 앞에 놓고 야담사가 특정 레파토리를 강연한다는 야담대회의 공연예술적 속성은 그 행위 자체가 검열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구나 김진구가 이끈 초기 야담대회의 계몽성과 목적성은 자연스레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야담대회와 관련된 단속과 검열의 사건 중에서 유독 1920년대 후반 초기 야담대회에 관한 것이 많은 것은 야담대회에 대한 일본의 시선이 편치 않았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야담대회의 불허와 야담사 구속 등 경찰과 야담대회 간에 벌어진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73) 야담대회 순회공연의 출발에 해당하는 1928년 조선야담사의 순회는 조선야담사의 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인데, 민효석이나 김익환, 김진구 등의 야담사가 찾아가야 하는 지역의 목록을 보면 함흥 등의 북쪽 지역은 물론, 진주와 밀양 등의 남쪽 지역, 철원과 강릉 등의 동쪽 지역, 그리고 논산과 공주 등의 서쪽과 내륙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식민지 조선 전체를 순회공연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8.7.31.



<1928년 조선야담사 순연 일정>

- ① 조선야담사(朝鮮野談社)의 순회야담대가 지난 십삼사 량일간을 대구 조양회관(朝陽會館)에서 중외, 동아 량 지국후원으로 야담대회를 열었는바 십사일에 동대회를 마치고 헤어지라할 지음에 림석경관으로부터 연사이던 김성(金聲) 김익환(金翊煥) 량씨를 검속하였다는 바 야담중 불온한 말이 잇섯다는 것이 원인이라더라.<sup>74)</sup>
- ② 시내광희문안에잇는 백의소년회에서는 작이십구일밤에 개최하려는 야담대회를 사정으로인하여 오는 사월일일(月) 밤닐곱시삼십분으로 연기하였다하며 동화대회만은 예정한대로 할터이라는데야담대회연데와연사는다음과갓다더라 義俠한빨세번 김익환씨, 壬辰女傑黑鞬將軍 김진구씨<sup>75)</sup>
- ③ 長明學院同情 야담대회가 23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려 하였으나 수원경찰서에서 “경찰의 방침”이란 구실 하에 금지<sup>76)</sup>
- ④ 경북기근구제(慶北饑饉救濟)를 위하여 텃도교 청년당룡산부(天道敎靑年黨龍山部)에서 지난 십일일야담회(野談會)를 개최코저하였스나 청원서의 서식이 불비하다는 리유로 당일에 와서 중지를시킴으로 부득이 연기를 하여 십오일 밤에 개최하기로 되엇다더라.<sup>77)</sup>
- ⑤ 1929년 논산야담대회에서는 김진구의 야담과 함께 “이십명의 어린 이들이 가극연습을열심으로”<sup>78)</sup> 했으나, 이들의 참가소식을 경찰서에서 교장에게 전달하자 곧바로 참가금지령이 떨어져서 야담만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sup>79)</sup>
- ⑥ 황해도봉산사리원에서는상공협회와곡물상조합에서 일반시민을위안키위하여 야담대회를 열나다가 경찰당국에서 허락지아니하여 두 번이나 연기하였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후주최측에서는 경찰에 문의한결과 본월십일이후는 어느때든지 조타는 허락올어더가지고

74) 『동아일보』, 1928.9.16.

75) 『조선일보』, 1929.3.30.

76) 『동아일보』, 1929.4.23.

77) 『동아일보』, 1929.6.16.

78) 『동아일보』, 1929.11.1.

79) 김진구, 『야담남국기』 4, 『동아일보』, 1929.12.7.

본월십이십삼량일에 개최하기로 만반분비를다한후 지난칠일부로 집회계출을한즉 모호한리유로 허가할수업다하여 주최측은 물론 시민 일반에 불만이자자하다는데 이제 허가치안이란 리유는 탐문한바에 의하면 우원총독(宇垣總督)일행시찰일자가그때되야아마집회를허치 안는듯하다한다.<sup>80)</sup>

야담대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다양하다. 청원서 서식이 완전하지 못하다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경찰의 방침이 그러하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이유를 갖다 대기도 하고 총독 시찰과 시기가 겹쳐 원천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야담사의 검거 사건으로, 1928년 9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된 대구 야담대회에서 야담사인 김성과 김익환이 검속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이미 허가한 야담대회임에도 임석경관의 권한에 따라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두 야담사를 검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검속 사건 이후로 야담대회의 공연에 경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1929년 11월 9일에 개최된 논산 야담대회를 기록한 김진구의 야담남국기<sup>81)</sup>를 보면 경찰의 개입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야담대회를 개최하기로 논의가 모아지면 주최자와 야담자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의 경찰서를 찾아가 허가를 받게 된다. 경찰은 야담대회 개최 목적과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야담사가 공연할 레퍼토리를 미리 시연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야담대회의 허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야담사 입장에서는 매우 꺾끄러운 일임에도 실제 야담대회에 임하는 듯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야담사의 시연을 본 경찰은 관객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야담의 구성 순서를 바꾸도록 명령하며, 야담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르게 된다.

80) 『조선일보』, 1931.9.10.

81) 『동아일보』, 1929.12.3~8.

야담사의 시연과 레퍼토리의 조정을 경찰이 요구한다는 것은 야담대회 자체가 관객들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연예술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시 근대미디어로서 극장기관이 지닌 선동성과 계몽성을 일본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총독 일행의 시찰 때문에 집회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 속에 야담대회가 몇 번이고 불허되는 상황은 야담대회를 집회의 하나로 간주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 극장미디어의 공공성과 역동성을 일본이 충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 4. 맺음말

각종 검열과 견제 속에서 근대 극장기관의 주요 공연예술로 자리를 잡아간 야담대회는 점차 야담사의 스타성이 강조되었고, 언론사와의 결합을 통해 상업성을 띠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레퍼토리 역시 김진구가 강조했던 “정신의 양식”에서 점차로 “배속에서 끌어오르는 웃는 때”로 변화하여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여흥물이자 오락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더구나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인 라디오 방송과 유성기 음반이 야담과 결합하면서 야담의 위상과 입지는 본격적인 대중오락물로 자리를 잡는다. 이처럼 야담이 여러 매체와 연동하면서 점차 대중오락으로 변화된 것은 공연예술의 측면에서도 지각 변동을 야기했다.

야담대회는 분명 민중교회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리 스타 야담사 김진구와 조선야담사가 수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지방순회를 다녀도 계몽성과 공공성은 반드시 전제된 성격이었다. 웃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야담사 한 명에게 집중해야 하는 야담대회의 공연예술적 특성상 관객들의 관심과 긴장을 유지하게 만드는 기능적 측면이 강했던 것이

다. 그러나 계몽성과 공공성이라는 야담대회의 기본 목적이 웃음과 흥미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공연예술의 한 장르로 새롭게 등장한 만담과 많은 부분이 뒤섞이게 되었다. 한 명 혹은 두 명의 만담가가 풍자를 뒤섞은 우스개 소리를 늘어놓는 만담은 공연 형식의 면에서는 야담대회와 매우 흡사하지만 웃음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흥미와 오락으로 변화된 야담대회는 ‘야담만담대회’라는 명칭으로 기획되어 만담과 공존을 하게 되었고, 오락성이 보다 강한 만담이 서서히 관객의 호응 속에 세력을 확장하자 명칭 자체도 점차 ‘만담야담대회’로 바뀌고 1936년 이후로는 야담대회만의 독자적 공연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근대적 공연예술로서 야담과 만담의 교섭과 길항의 양상은 다른 자리를 빌어 보다 본격적이고 실증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적어도 1930년대 중반 이후의 극장은 식민지 시기 공적 미디어로서의 공공성보다는 흥행성과 오락성이 중요한 존재의 논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연예술로서의 야담대회가 점차 만담에게 자리를 내어준 또다른 계기는 야담잡지의 창간이다. 윤백남은 1934년 10월 『월간야담』을 창간하였고, 이 잡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뜨겁자 김동인도 1935년 11월에 『야담』을 창간하게 된다. 야담대회의 공연 레퍼토리는 물론 일명 ‘야사’와 설화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야담잡지의 주요 콘텐츠를 차지하게 되는데, 공연 예술로서 극장공간에서 연행되던 야담은 이제 잡지로, 방송으로, 음반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인쇄매체로의 변화는 야담대회의 필요성을 감쇄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담은 근대적 공연예술로서 야담대회라는 새로운 양식을 선보였으나, 야담의 원 매체인 인쇄매체로 회귀하면서 다시금 ‘독물(讀物)’로 그 위치를 바꾸게 된다.<sup>82)</sup>

82) 신상필은 “1927년 조선야담사의 창립과 함께 김진구가 제창한 야담운동은 10년여를 경과하며 『월간야담』과 『야담』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적고 있는데, 김진구의 야담운동이 연행성을 전제로 기획된 공연예술이라는 점, 민족교화의 문화운동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김진구로부터 촉발된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의 야담대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대의 야담을 인쇄매체의 서사물이 아닌 강담과 고담의 연행행위로 간주한 김진구의 인식에서 야담이 공연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근거를 찾았다. 이를 기반으로 근대 공연예술로서 야담대회의 면모를 기획과 구성, 스타 야담사, 공간과 관객, 지본과 검열의 측면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근대 공연예술로서의 야담대회의 실체를 당대의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는 데에 주력한 궁극적 목적은 근대적 미디어로 등장한 극장이라는 하드웨어에 운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인쇄매체를 존재기반으로 삼았던 야담은 근대 극장이라는 환경과 접촉하면서 1인의 야담사가 입장료를 지불한 다수의 관객을 앞에 놓고 연행하는 야담대회, 즉 공연예술로 자리를 잡았고, 이는 야담과 공연양식을 공유하는 ‘담류(談類)’의 분화를 촉발하는 토대가 되었다. 결국 근대적 미디어로서의 극장은 전대로부터 이어진 전통적 서사물을 퍼포먼스로 입체화시키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담대회에서 주로 공연되던 레퍼토리의 특성을 분석하여 당대 관객들의 정서와 지향을 읽어내는 것,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야담이 야담대회의 레퍼토리와 변별되는 지점들을 탐색하는 일, 그리고 ‘담류’로 분류할 수 있는 만담이나 재담이 공연예술로서의 야담과 어떤 지점에서 다른 길을 갔는가 등을 추적하는 작업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잡지들은 이미 야담운동이 김진구의 목적을 벗어나 흥행과 오락 위주로 대중화된 이후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야담운동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인쇄매체로의 ‘회귀’가 더 적절하다. 신상필, 『일제시기 야담대회의 현장』, 『한문학보』 제16집, 우리한문학회, 2007, 330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

### 2. 단행본

공임순, 『식민지 시기 야담의 오락성과 프로파간다』, 엘피, 2013.

### 3. 논문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제 3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공임순, 「재미있고 유익하게, “건강한” 취미독물 야담의 프로파간다화」, 『민족문학사연구』 제34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제20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_\_\_\_\_, 「19세기 말~20세기 초 야담의 전개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배선애, 「1920년대 준극장기관과 주체 형성의 양상」,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_\_\_\_\_, 「대구경북지역의 문화 환경과 조선인 극장의 로컬리티—대구 만경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신상필, 「일제시기 야담대회의 현장」, 『한문학보』 제16집, 우리한문학회, 2007.

위경혜,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제4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이동월, 「야담사 김진구의 야담운동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 「근대 ‘야담가’의 존재와 구연 활동」, 『구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

이순진, 「1930년대 조선영화문화의 변동과 조선인 영화상설관의 소멸—단성사의

- 몰락과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이승희, 「공공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조선민간자본의 문화정치—함경도 지역 사례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 \_\_\_\_\_, 「조선극장의 스캔들과 극장의 정치경제학」, 『대동문화연구』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문화 사업, 극장업」,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임형택, 「야담의 근대적 변모」, 『한국한문학회연구』 창립20주년기념 특집호, 한국한문학회, 1996.
- 차혜영, 「1930년대 『월간야담』과 『야담』의 자리」,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02.
- 황병주, 「식민지기 공적 공간의 등장과 공회당」,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 Abstract

# Yadam(Historical Tale) and Yadam Contests as the Modern Performing Arts

Bae, Seon-ae

Yadam was based on printed media traditionally, but in 1920's second half, Yadam was transformed the yadam movements by Kim Jin-gu and Chosun yadam sa. Kim Jin-gu was combined Yadam with theatre as modern media, so, Yadam was not any more Literary genre. Yadam contests that planned by him brought great changes in its train. It became a genre of modern performing arts.

Yadam contests as a modern performing arts had some elements. The first was Yadam teller, the second was stage of indoor theatre, the third was audience who paid some money for admission, the forth was repertory about the Historical story of Chosun, the fifth was the backing of the media. Yadam teller was as like as an actor, that he performed yadam for audience, and he became a star. Yoon Baek-nam, who stands head and shoulders above Yadam tellers, was very famous star. The stage of Yadam contests was prepared any place included semi-theatre institution(a space built on public purpose like town house, village hall, school etc.) that could gather large audience. The audience of Tadam contests was without distinction of sex or age, and the admission that they paid was 20jeon(20 錢) on average. The repertory was consist on increased audience's emotions, and the backing of the media made Yadam contests for a public entertainments.

The theatre of the modern media made Yadam that continued to tradirional literary for a modern performing arts, and it was very dynamic space that performed a function to

genre differentiation of Dam-classes as modern performing arts.

Key words : Yadam(Historical tale), Yadam contests, Kim lin-Gu, Yoon Baek-nam, Chosun Yadam sa, modern media, theatre, local media, modern performing arts, Dam-classes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기간: 2013년 11월 11일~12월 7일

게재결정: 2013년 12월 7일